경외심 남발하다 맞는 결말

(이사야 34:1~17)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경외심 남발하다 맞는 결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경외심 남발하다 맞는 결말'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께서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속한 교회는 교인이 500명쯤 되는데 비해서 당회원은 숫자도 적고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세 분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도중에 교회 일이 결정되고는 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세 분이 쩔쩔매면서 목사님 뜻대로 하시라고 대답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교회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만두게 되는 너무나 우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생각이 달랐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대로 '나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럼 그만 두십시오.'라고 받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에도 없는 '나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남발하시다가 그것이 참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의 씨앗이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보았던 내용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모든 불행의 씨앗이 '경외심의 남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나누는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흔히 세속적으로는 어떤 나쁜 행위를 한 결과로 인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은 행위 이전에 죄를 짓게 한 마음 상태가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바로 경외심을 남발한 것입니다. 경외심이 남발되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행위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경외심이 남발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또한 믿음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공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경외심은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공포는 무엇인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경외심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믿음에 기인합니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어지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외심을 아무 대상에게 갖다 붙입니다. 결국 삶에서 경외심 남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남발은 이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심지어 죽어서 가게 될 지옥을 예행 연습하게 만드는데 무서운 얘깁니다.

본문 1~4절까지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다시 나타납니다.
앞서 24~26장에서도 이러한 우주적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의 기쁨거리를 찾는 것이 심판의 과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안정감의 토대를 확보하려 하는 것과, 하나님 이외의 사실들을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심판의 과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33장에서 강조했던 하나님 경외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경외심의 남발'이 심판의 원인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심 남발은 앞서 보았던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는 것, 안정감의 토대를 확보하려는 것,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들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사람들 전체를 '에돔'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제였던 에서의 후예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과정이 무척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잡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받을 자가 에돔으로 상징된 이유와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의 죽음으로 비유된 이유를 알아봄을 통해서 ‘경외심 남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할 사람들 전체를 에돔으로 상징한 이유입니다.
에서는 선민의 나라 안에서 한 가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사람은 한 대상에 대해서만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없으면 가장 두려운 마음이 되는 상태가 경외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마음이 비어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 대상이 사라질 때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상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채움 거리로 믿고 있는 대상을 육체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존재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경외의 대상을 세상에서 찾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로부터 경외심의 남발이 시작됩니다.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은 선민의 상징이었기에 한 순간의 배고픔을 위해 사용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십년이나 배회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마실 물과 먹을 떡도 필요합니다. 입을 옷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광야로 이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없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뿐임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물이나 떡이나 옷 또는 고기 같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민들이 받은 광야 훈련의 핵심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경외심을 마실 물과 먹을 떡에 사용합니다. 물과 떡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다시 돈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러한 경외심의 선택을 위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심

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원인을 드러내 줍니다.

사십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은 먹을 떡입니다. 사탄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떡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아성취입니다. 즉 나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아성취에 대한 경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자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실패를 견디지 못합니다. 성공한 자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도 떨쳐내시고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곧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과정이 무척 잔혹하게 묘사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 심판의 모습은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죽이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나의 삶은 광야의 현실이 재현됩니다. 내 마음에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경외입니다. 또 자녀를 보니 자녀가 형통치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자녀의 인생이 잘못될까 걱정이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경외입니다. 안 되면 큰일 나겠고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두

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만으로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번제단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 경외심을 남발하는 아담의 원죄의 체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소가 죽는 것을 보며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제단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대속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번제물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입니다.
본래 죽어야 될 대상은 원죄를 가진 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셔서 그 원죄를 해결할 장소로써 번제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경외심을 남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극단적인 환경인 광야로 몰아가시면서까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조차 문제가 되는 것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십일을 금식하시고서도 경외의 대상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살아가니 이것이 죄악입니다. 또한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멸망할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많이 모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번제단의 제물처럼 그 심판의 칼을 대신 맞아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경외심의 남발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외심의 남발은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이라도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지속해나가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으로도 모자라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이 은총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선민이고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경외심을 남발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번제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해야 했던 심판의 칼날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실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1세기 무렵에는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가 나타나서 구약의 하나님을 저급하

고 열등한 신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진노의 신이고 심판의 신이며 물질 위주의 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오직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과 다름없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죄악이 있습니다. 삶에서 경외심 남발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어서 채워져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뿐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는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나비나 벌이나 모기도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정의되었습니다. 인간은 곧 하나님 없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돈 없으면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외를 세상에 대해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개념에서 인간 이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죽이며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졌으니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짐승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시되시며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이고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저주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홍수로 인간들을 쓸어버리셨을 때에도 인간이 아닌 고깃덩어리를 쓸어버리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이라는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통해 인간의 탈을 쓴 자들에게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도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 경외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들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잘 가꾼 포도원을 망치는 멧돼지처럼 교회를 잔멸시키는 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

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능성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인간이 아닌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에 대한 개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십일을 금식하시고도 떡이 없음보다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멋진 자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가 없음보다 하나님이 없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나 재물은 물론이요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없음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을 남발하는 상태를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를 무시하고 끝내 짐승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기시고, 번제단의 짐승을 죽이듯이 죽이시리라는 예언을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만 복음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시고 지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아담의 후예로써 끝없는 경외심 남발의 체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생활화함을 통하여 이러한 체질이 하나님 경외심으로 바뀌는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